



세계선교전략 : 한국인 선교사의 관점에서

김한식

I. 선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1. 선교의 주관자

선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섭 그리고 돌봄으로 이뤄진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교의 개요요 내용이며 하나님의 간섭이 선교의 동기요 시작이며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일 것이다.

복음의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분이 원하시는 사람에 의해 그분의 시간계획에 따라 성취된다. 그리고 그 분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선교라는 고리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2. 선교의 대상

다만 선교의 대상에 따라 선교의 방식이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는 사려 깊은 전략이나 정책은 물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훈련의 중심에는 상대를 아는 일이 포함된다. 선교의 대상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선교의 효과에 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아픔, 마음에 담고 있는 소망, 믿음의 성격, 금기, 문화적 배경, 정치적 상황 이 모든 것이 상대를 아는 일이며 선교전략의 기본이다.

이 시간 그 대상을 제3세계에 두기로 한다. 제3세계 선교는 제3세계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열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들만이 경험했던 역사적 흔적이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수백 년을 짓누르며 새겨진 이 흔적은 오늘날 제3세계인들의 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왔다. 세계열강이 제3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3세계의 오랜 식민지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지배에 대한 반응으로 제3세계인들의 민족주의가 형성되어 온 내면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오늘날 제3세계인들의 대외관 특히 강국에 대한 심정적 반응을 짐작하게 해준다. 과거의 식민지배 역사와 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식민지배가 끝나고 독립을 구가하는 오늘날 제3세계인들의 국제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현재 제3세계인들의 가슴속에 흘러가는 정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의식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꿈과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현실 간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그들이 지향할 정책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세계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전달하는 특이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그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것은 상당부분 전하는 자의 몫이다. 특히 제3세계는 매우 이질적이어서 선교전략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국가에 알맞은 선교전략이 제3세계의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3. 선교의 실행자

선교의 실행자를 한국인 선교사로 국한하기로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3세계 선교현장에서 부딪치는 특이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이점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환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정부의 제3세계정책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제3세계 정책이 무엇이며 그것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하고자 하는 한국의 제3세계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의 국적인 한국과 선교의 대상인 제3세계가 쌍방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선교의 실행자로서의 한국인

1. 아쉬운 점

- 가. 열정 위주
- 나. 지속성 미약 (훈련등한, 후원자 관리미숙)
- 다. 인내성 부족
- 라.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2. 강점

- 가. 수난에 견디는 강한 힘
- 나. 말씀에 근거한 신앙바탕
- 다. 순교로 무장된 신앙전통
- 라. 민족주의와 선교의 조화

III. 포괄적 적용 - 제3세계 선교와 관련하여

한국인 선교사가 제3세계 선교를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제3세계 선교를 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이한 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환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정부의 제3세계 정책을 주목하게 된다. 말하자면 한국의 제3세계 정책방향이 어떠한가에 대

한 고려가 제3세계 선교에 임하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유념해야 할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한국의 제3세계 정책이라고 하면 의례히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듭 강조되어야 하는 바 가능한 쌍방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제3세계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책이라기보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 더 적절할 것 같다.

한국이 제3세계와 어떤 협력관계를 이뤄갈 것인가? 한국이 제3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3세계가 매력을 가질만한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접근하는 방법부터 간단하지 않다. 개별 국가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역협력기구를 통한 총괄적인 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제관계에 중점을 두는 협력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치나 군사관계에 중점을 두는 협력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협력의 분야별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따라서 그리고 협력의 속도나 강도가 다름에 따라서 협력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서로 혼합하여 추진되는 협력의 형태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협력의 방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한국이 제3세계에 어떤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할 것인가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래도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예시적(例示的)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 같다. 여기서는 그 대상을 미얀마로 한정하기로 한다.

IV. 구체적 적용 - 미얀마 선교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연구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가 따른다. 무엇보다 협력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서로 공통되는 점은 협력의 바탕으로 삼고 서로 다른 점은 상호보완의 요소로 삼기 위해서이다. 국가간의 협력에는 많은 제한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마련인데 이때 자칫 공통점은 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이점은 오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또 이러한 접근방법에 전제가 되는 것은 협력의 성격과 방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혹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협력방안일수록 단기적 협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비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또 비용이 많이 드는 협력인지 적게 들어도 되는 협력인지가 미리 규명되어야 한다. 양국간의 협력이 타 국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양국간의 협력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이 좋다. 이러한 협력의 성격과 방법을 전제로 협력의 계획이 짜여짐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선교사가 미얀마선교를 위해 한국과 미얀마와의 협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통점 가운데 양국 모두 전통문화가 무너지는 과도기 상황으로 갈등의 폭이 넓다는 점과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존성을 지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존심 매우 강하다는 점을 선교사로서 유념해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갈등이 많아 우리 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자존성이 약할 것이라던가 하는 선입견은 금물이다.

셋째, 한국의 미얀마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의 성격일수록 선교에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는 미얀마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를 활용한 다. 인류학·고고학분야와 동·식물 및 산림·해양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대학 수준의 학술교류에서는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얀마의 특정 대학을 정해 교수와 학생이 상호교류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그 곳 대학으로 연수되는 인력에는 선교훈련을 받은 예비된 선교사들이 대거 포함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는 교수와 학생에 대해서도 복음을 거부감 없이 접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섯째, 근대화 및 국가발전 모색을 위한 공동협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는 한국이 근대화된 과정을 복음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분야는 특히 미얀마 국가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 되어도 무리가 없다. 여기에는 자본의 확충에 개신교의 윤리의 중요성을 제기한 Max Weber의 논리를 한국 근대화에 끼친 개신교 신자들의 역할을 들어 설명한다.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의 주역은 한국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7세기 복음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실학이라는 학풍을 통해 한국의 자생적 근대화와 민주화 논리가 싹트게 되었고, 19세기 개신교가 소개됨으로 이러한 민주화 논리는 한결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적 전통이 검소와 절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룬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스크를 활용하는 등 보다 강하게 사실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미얀마 지도층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가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제한적임을 이해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관광 증대를 통한 문화교류에 있어서나 도시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일은 선교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관광안내는 이를 전담하는 선교단체가 맡는다. 여기 관광지에 순교지를 포함된다. 관광크루즈 운영으로 많은 시간을 선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성경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상영이나 한국전쟁을 소개하면서 손양은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기독교인의 순교사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관광의 대상이 미얀마와 베트남이 연결되는 경우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기독교들로 구성된 베트남 선교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들은 베트남의 정서를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베트남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복음의 기수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단에게 월남전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도시 간 자매결연은 일단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책임자가 있는 한국 내 도시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양 도시의 교류에 복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으로 선교에 착

수한다. 해당 자치단체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며 고아들을 돌보고 양로원을 운영하며, 의료기술로 구슬땀을 흘렸던 한국의 여러 은퇴한 선교사들을 다시 규합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미얀마와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는 계획은 미얀마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한국에는 농촌 청소년 국제기술교환훈련(IFYE), 4H 등. 농업기술등 각 분야에 선진기술이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연수받는 미얀마인들을 한국의 대기업에 연결하고 대기업에서 이를 인계받아 교육시키는 역할도 미리 준비된 전문인 선교사가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미얀마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직업훈련소를 설립하며 연수생을 초청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국제기아 대책기구나 선명회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얀마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을 실천적으로 받아드리게 할 것이다.

여덟째, 선교사로 준비된 새마을 지도자를 통하여 미얀마 국가 내 새마을운동을 확산한다. 새마을운동은 미얀마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표본으로 매우 관심이 많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훈련받은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자기 고향에서 활동하는 상황도 계속 살피면서 인근 선교기관과 지속적인 유대를 가지도록 한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이들 젊은이들이 활동하는 마을은 새마을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경기를 상호 교류하는 일은 청년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미얀마에서도 인기가 높다. 한국의 축구 선교단을 통해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복음전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활동을 미얀마 선교차원에서 연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열째, 선교사는 군사협력에 있어서는 한결 신중해야 한다. 그 목적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을 주고 방어적인 것이 분명하며 그 나라 국민의 폭넓은 지지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양측의 우호협력에 금이 가지 않을 그러한 형태의 군사협력이라고 하더라도 선교사가 군사협력에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무기·장비 구입 시 공동보조를 취하는 일이나 방위산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에 좋은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관여하는 것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열한째, 군요원들의 상호교류는 미얀마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미얀마 군요원이 한국에 파견되는 경우나 한국 군 장교가 미얀마에 파견되는 경우 모두 미얀마 선교에 귀중한 기회이다. 미얀마에 파견되는 한국군 중에 선교사로 훈련된 용사가 있다면 그는 미얀마 현지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나

눌 수 있다. 그는 인근 지역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직접 간접으로 도울 수 있다. 방문하여 격려하며 상황을 소개하고 본국의 파송교회나 파송선교기관의 소식을 전한다. 경우에 따라 자기가 교육받고 있는 현지의 교회나 신앙인과 연결되도록 할 수도 있다. 외로운 선교사의 삶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역자와 몇 시간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현지 한국인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이 될 것인가. 미얀마에 파견되는 한국 군 장교 한 사람이 훈련된 용사라면 그의 역할은 실로 대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동남아인 장교 역시 귀중한 선교의 대상이다. 그는 오래 동안 한국에 머문다. 한국을 소개하는 중에 체계적으로 신앙을 소개받으며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그가 본국에 올리는 보고서는 귀중한 간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육군대학과 지휘참모대학은 물론이고 국방대학교에도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온 대령 또는 장군 학생이 일년간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이 본국에서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선교는 가장 자유스럽고 장기적이며 합법적으로 그리고 매우 유력한 인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얀마 선교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열두째, 미얀마에 대한 선교전략을 마련함에는 미얀마인의 영국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읽어야 한다. 세 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으로 미얀마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기억을 이들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쟁으로 이들의 자존심은 송두리 채 짓밟혔고 오늘날까지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내적 분열과 갈등은 영국의 분할지배정책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영국 선교단체나 미국선교단체와 협력하여 미얀마 선교에 임할 경우 이러한 점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열세째, 소수민족의 독립저항운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카렌족의 게릴라 활동을 저지하는 것은 미얀마 정부로서는 가장 힘든 일인데 카렌족의 주된 종교가 기독교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인에게는 과거 그들을 괴롭힌 영국이나 오늘날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카렌족이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들의 저항감을 짐작하게 한다. 카렌족은 미얀마 독립군이 영국을 공격할 때 독립군과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국 편을 들었다. 미얀마의 버마인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 미얀마 선교전략에는 카렌족이나 친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기독교인과 협력하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많은 선교단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열네째, 미얀마의 독립운동이나 전통의식의 한가운데에는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역시 미얀마 선교정책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반 영국운동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불교의 보존운동이었다. 버마 민족주의운동은 처음부터 그 중심에 불교문화의 보전이라는 종교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운동의 주역들이 근대 미얀마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그 후손들이 수 지여사를 비롯한 오늘날 정치적인 주역들이다. 미얀마의 경우 역시 복음전파에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얀마의 불교가 소승불교라고 하나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점, 그리고 미얀마식 사회주의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남아 소승불교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선교전략에는 미얀마 소승불교의 특이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열다섯째, 미얀마에는 사회주의적 정치움직임이 강하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영국에 대한 저항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더 힘을 얻은 것이다. 대체로 군사정부와 사회주의 세력은 적대적이다. 미얀마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경제의 발전전략에 사회주의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이 사회주의의 사상 속에는 불교문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얀마 선교전략에는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열여섯째, 대체로 미얀마인들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는 점을 선교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미얀마의 대영 항쟁에 일본이 보조를 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계통의 선교기관과 협조하면서 선교전략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열일곱째, 미얀마의 종교자유는 본질상 외형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얀마의 공식휴일에 기독교나 이슬람 성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랑곤 시내에는 여러 종교의 기념비가 있어 종교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74년 헌법에는 종교에 대한 입법, 행정적 제한이 허락되고 있다. 군사정부는 종교를 국가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소승불교(Thervada Buddhism)를 장려하며 초등학교 교과에 불교교리를 담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견제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불교도들에 의한 기독교 확산 저지가 정부의 뒷받침 속에서 용의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종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5명 이상 모이는 외부모임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1960년 중반부터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밋손계 학교나 병원이 국유화되었다.

열여덟째, 그러나 복음화의 물결은 이곳에도 서서히 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미얀마 군사정부는 세계여론에 밀려 종교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할 입장이 못 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1월 한 독일 회사가 정부허가를 받고 1만 권의 성경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얀마 독립 이전부터 있었던 일부 카톨릭 사제와 수녀들의 활동은 현재도 허락되고 있다. 복음전파가 어려운 가운데 이슬람도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이슬람이 없는 그래서 보다 순수한 복음이 자리잡게 될지 모른다.

열아홉째, 선교단체가 미얀마를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을 돕는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얀마 역시 비동맹 중립정책을 추구하면서 실리를 얻으려고 한다. 미얀마 선교에 있어서 비록 선교단체가 서방의 경제지원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불만의 원인이 되며 서방의 경제지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거나 서방의 경제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 서방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된 선교단체 역시 저항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무째, 미얀마 선교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아세안(ASEAN)을 통해서 추진되는 길이다. 이러한 방법이 쉽지는 않겠으나 가장 저항이 적으며 또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이 주관하는 종교와 가정문제나 다종교의 평화의식의 비교연구 그리고 종교와 근대화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연구발표회를 가지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근대화 비교, 강대국의 미얀마 정책, 청소년의 정신교육, 인력개발의 방법과 활용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에 관한 주제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얀마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그것이 아세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토의됨으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할 수 있다.

스물한째, 미얀마 선교에 있어서 군부가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미얀마가 후진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연이 얽힌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군부가 민주주의를 멀리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투쟁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동서 어디에서나 일반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선교사가 미얀마 군부세력에 대하여 저항의식을 가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나름으로 그 국가의 독립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군사독재정부가 경제개발과 안정확보라는 측면에서 집권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 선교사가 군부의 공격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지역 선교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스물두째, 미얀마 군사정권의 특이성과 관련하여 미얀마 선교전략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이나 규정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성향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규정이나 법에 근거하여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선교사는 선교와 상관없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둘째 군사정부는 반서구적이며 국가독립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명분으로 국민감정에 부합,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가 가장 좋은 제물의 미끼가 될 수 있다. 셋째 선교사가 국가 내 분쟁에 관여되었을 때 군부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특히 군부가 기존 권력층이나 부유층에게 환심을 살려고 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 넷째 미얀마의 민주화는 대세(大勢)지만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했을 때 선교사는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스물세째, 미얀마 군부가 종교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지식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일반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군부에 대해 그렇게 저항적이지 않다. 오히려 군부를 지지하는 성향이다.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세력도 그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들은 과거 군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미얀마 민주세력의 수장인 수지여사는 독립군 지도자의 딸이다.

스물네째, 선교사가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명분으로든지 게릴라와 연계되었을 때 그는 군부가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인도적 입장에서 주민과의 친근한 유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주민으로부터 친근한 이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 이슬람권이면 무슬림과 그 지역이 불교권이면 불교인들과 인간으로서의 우정이 먼저 형성

되어야 한다.

스물다섯째, 게릴라의 성격이 선교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선교사가 그 나라 정부당국과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선교사는 경우에 따라 게릴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지역에서 그러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인도적 관점에서 게릴라 측과 정부 측 양쪽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게릴라의 성격에 따라 공격의 대상이나 공격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공산게릴라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공산주의자들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 색깔이 강하며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 같은 순수 유물론자로 취급,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등 절대가치가 사라진 마음의 공백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물여섯째, 미얀마 선교전략에 있어서 미얀마 역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강국에 대해서 가지는 경계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국의 힘을 서로 상쇄시키려는 미얀마의 전략은 성격상 은밀히 추진되기 때문에 미얀마 선교기관이 강대국 선교부와 접촉을 가지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미얀마 선교단체가 관련 강대국 내에 다양한 선교단체와 보다 장기적으로 유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 선교가 강대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교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스물일곱째, 군부지도자들은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전통종교가 한계가 있다는 것, 기독교의 엘리트들이 근대화의 전위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데 기독교가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점도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군부가 기독교와 협력하는 것은 민심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통일성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군부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 국가와 가까운 우방의 군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군선교부가 결성될 수 있다면 이들이 미얀마 군부에 복음을 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얀마 지도층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선교전략에 참고할만하다. 합동 훈련작전,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군고위장교들의 상호교환교육 프로그램, ARF를 통한 군고위층의 정기적인 회의 등에 한국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세계기독교군인들의 모임(AMCF: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은 미얀마 군 선교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MCF는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공산권은 물론 이슬람권 국가들과 동구 정교권 국가들도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군선교부를 통해 간접으로 미얀마 군선교를 이끌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

V. 맺는 말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만 선교의 실행자나 선교의 대상이 다름에 따라 선교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에는 전략은 물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략이나 훈련의 중심에는 상대를 아는 일이 핵심인데, 이들의 아픔, 마음에 담고 있는 소망, 미움의 성격, 금기, 문화적 배경,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선교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 선교사의 경우 한국인의 역사, 심성 그리고 현재 한국정부의 선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 선교사에게는 지속성이나 인내성이 다소 약하고 특히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는 수난에 견디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바탕과 순교로 무장된 신앙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선교가 공존하는 특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지구상에서 제3세계 선교권에 가장 유용한 선교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선물일 것이다.